

SM, 일본산 수입 줄고 사우디 늘어

일본 정기보수공사 영향으로 ... 미국 가격 강세로 사우디 수입 급증

일본 SM 생산기업들이 3-4월 집중적인 정기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공급물량을 줄임에 따라 미국, 사우디에서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.

SM 수입량은 2002년 1-2월 7만1160톤에서 2003년 1-2월 6만7543톤으로 줄어들었으나 미국산 SM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사우디에서의 수입량이 2003년 1-2월 5945톤에서 2004년에는 1만5320톤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 미국산 SM 수입량은 2003년 1-2월 3만4375톤에서 2004년 3만8000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.

일본산 SM 수입량은 2003년 1-2월 2만5857톤에서 2004년 1-2월 1만3714톤으로 크게 줄어들어 수입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나타났다.

일본산 SM 수입량이 줄어든 이유는 3-4월에 집중적인 정기보수공사에 따라 일본 생산기업들이 공급물량을 줄여 계약했기 때문이다.

반면 2004년 1월 국내 SM 생산량은 23만9473톤에 국내판매 17만5404톤, 수출 6만8784톤으로 국내판매가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국내판매량이 16만4018톤이었던 것을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수요 1만톤을 국내에서 보충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제품들은 사우디 생산기업들이 대부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미국,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큰 것으로 기업들은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산 가격이 강세를 보여 사우디산 제품 수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.

수입 SM을 사용하는 기업은 LG화학, 제일모직, 금호석유화학 한국BASF 등이 있으며 LG화학은 2004년 1-2월 1만8612톤, 제일모직은 2만8338톤, 금호석유화학 2만1136톤을 수입했다. <한기석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3/22>